

# 경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대책 방안\*

Assessing the Quality of Life and Policy Implications in Kyungsan Areas

대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채정숙  
부교수 조희금  
부교수 박충선  
조교수 정영숙

Dept. of Home Management, Taegu Univ.  
*Professor* : Jung Sook Chae  
*Associate Professor* : Hee Keum Cho  
*Associate Professor* : Chungsun Park  
*Assistant Professor* : Young Sook Ch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고찰 | V. 복지대책방안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living in Kyungsan areas and to suggest welfare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quality of life. The research was based on the quality of life model including 10 domains such as community environments, community services, housing, family, social network, education, health, employment and household labor, leisure, and economic security. The survey was carried out in Kyungsan city and its neighboring areas. Using 686 cases, the regional differences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the important variables from 10 domains.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living in Kyungsan city and its neighboring areas.

\* 이 논문은 1995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경제개발노력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가지 사회적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양적 풍요 뒤에 숨겨진 문제로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빈부격차의 문제, 산업구조의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 문제가 상대적 박탈감이나 계층간 지역간의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돌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동안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양과 질의 균형적 발전에 두게 되었으며,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회의 구현을 정책의 기조로 삼기에 이르렀다.

「삶의 질」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조건에 대한 보유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복지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척도는 복지를 개별적 차원에서 혹은 속해 있는 집단과 환경에 대해 나타낸다.

복지수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내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이고 수량적인 상태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되어 점점 더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소득이나 GNP 등의 경제지표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잘 산다는 것', 즉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는 새로운 척도개발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기울어졌다. 그들은 삶의 질을 인간의 물질적·비물질적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생활 환경이나 조건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생활과 관련된 미시적 지표를 삶의 질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삶의 질을 주관적인 삶의 체험감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국민생활의 관심영역에 대하여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삶의 질 척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주학중, 1977: 통계청, 1995)

그 후 삶의 질은 단지 인간의 물리적, 대인적, 사회적 환경조건과 관련된 것 만은 아니고 이러한 조건들이 자기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

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만족감을 동시에 고려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포괄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용어자체의 개념정의에 대해서 학자들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나타내는 바람직한 지표의 구성이나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조희금, 198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인간 사회에서는 언제나 보다 나은 생활상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으므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으며,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이룩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화 시대의 막이 열리는 현 시점에서 지역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는 연구들은 지역정책의 방향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전국 규모의 사회지표 산출이나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서지역과 같이 보편적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지역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부합되는 지역의 행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통합경산시를 선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복지대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과제로 선정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경산시 주민의 생활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후속연구에서 보다 이론적 체계를 세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이 통합된 경산시 주민의 생활실태를 삶의 질 척도에 근거하여 시, 읍, 면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성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하며 연

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의 생활실태 분석을 위한 기본적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20여 년 동안 수행되어 왔지만 그 개념이 지니고 있는 포괄성으로 인하여 조각화된 개념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일된 이론적 틀보다는 연구대상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틀이 제시되어 왔다.

서구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객관적 차원에서 물리적·환경적 요인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1970년대부터 McCall(1975), Andrews(1976), Metzen(1980), Campbell(1981), Dunsing(1983), Hafstrom(1986) 등에 의해서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물질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을 도입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들이 다루었던 삶의 질 영역은 교육, 건강, 지역사회서비스, 가족, 관리, 경제적 안정도, 주거환경, 취업환경, 이웃관계, 여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모델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경향을 조사대상지역별로 도시, 농촌, 그리고 도시지역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문숙재 등(1985)이 도시 가정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객관적 생활조건에 관한 문항으로 경제생활, 영양, 주거환경, 자녀교육, 가족관계, 건강, 가사노동, 여가생활의 8개 영역에서 35개 지표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농촌지역의 연구로는 한경혜(1980)가 농가의 생활의 질 측정을 살펴 보았는데, 농가생활의 질 진단지표로서 영양, 건강, 주거, 작업조건, 교육, 가족관계, 경제적 안정성, 여가의 8개 생활영역에 관한 척도를 구성하였고, 객관적 생활여건과 주관적 만족도를 생활의 질 개념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문숙재 등(1983)은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하여 가정생활 체계의 개념적인 틀로부터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척도를 유도해내어 가정경제, 건강, 가정관리, 식생활, 주생활, 가족관계, 여가, 교육의 8개 영역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44가지 지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최은숙 등(1992)과 김인숙(1993)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존연구와 달리 다차원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가구의 객관적 생활조건과 주관적 만족도를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 그들이 거주하는 생활조건과 주관적 만족도 등 4 가지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미시적 차원에서 생활영역을 영양, 건강, 주거생활, 노동생활, 교육, 여가생활, 경제생활, 가족생활의 8개 부문으로 나누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마을의 일반적 조건, 자연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나누어 각 차원별 수준을 제시하고, 다시 이들의 합을 농가생활의 질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도시지역의 연구로는 정영숙(1994)이 한산도지역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생활의 질 만족도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였는데, 생활의 질 만족도의 범주에는 경제생활, 주거생활, 마을의 자연환경조건,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참조하면서, Metzen(1980)의 NC-128 프로젝트(미국의 North Central Region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자 한다. 이 NC-128 모델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로서, 본 연구가 경산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구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모델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이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Metzen의 통합 모델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을 진단하기 위해 설정된 하위영역으로는 ① 지역환경, ② 지역서비스, ③ 주거, ④ 가족, ⑤ 사회망, ⑥ 교육, ⑦ 건강, ⑧ 고용 및 가사노동, ⑨ 여가, ⑩ 경제생활 이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지역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부와 군부가 통합되어 1읍 7면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경산시이다. 경산시는 경상북도의 서남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인접하여 대도시의 주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1980년대 이후 많은 대학이 옮겨와 현재 지역내에 11개의 대학을 가지고 있는 학원도시이며, 1990년 이후 조성되기 시작한 3개의 신흥공업단지와 1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체가 입지해 있는 공업도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구시 및 인근 시, 군지역으로부터 유입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도시화되면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집약형의 도시근교 상업농이 발달한 지역으로 주요 농산물은 대추, 포도, 복숭아, 사과 등이 유명하다.

이처럼 경산시는 도시적인 성격과 농촌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곳의 하나이며, 1995년 현재 인구가 약 16만명, 가구수 약 5만의 도시이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경산시 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생활의 영역을 Metzen 등(1980)이 제시한 삶의 질 개념모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지역환경 - 지역의 자연·물리적환경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정도
- 지역서비스 - 지역내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만족정도
- 주거 - 소유 및 편의시설, 주거공간 및 환경에 대한 만족정도
- 가족 -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 사회망 - 친구 및 이웃관계
- 교육 -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정도 및 교육의 유용성

- 건강 - 개인 및 가족의 건강상태와 만족도
- 고용 및 가사노동 - 근무 및 통근시간 등의 고용과 가사노동시간 등
- 여가 -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 여가용품의 보유도
- 경제 - 소비 및 소득과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

조사도구는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기 기입식 및 범주화된 문항들과, 만족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만족한다'의 5점에서 '불만족한다'의 1점에 이르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도 첨가되었다.

#### 3.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기혼의 성인 남녀이며, 예비조사는 1995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에 걸쳐 100명을 조사·분석한 후 설문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본 조사는 10월 25일부터 12월 16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본조사의 조사대상은 다단계 층화표집 방법으로 추출하였는데, 경산시의 1읍 7면 6개동을 각각 하나의 조사구로 하여 각 조사구의 인구비례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를 할당하고, 각 조사구내에서는 해당수의 대상자를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유의표집 하였다. 1차조사는 농촌지역인 읍과 면지역에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2차조사는 도시지역인 6개동에서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고등학교 3개소를 임의추출하고, 해당학교에서 다시 1개반을 추출한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1차조사 350부, 2차조사 350부의 총 700부가 배부되어 전수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68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1차조사시의 면접원은 대학에서 연구방법론을 수강하여 면접기법을 훈련한 대학생들이며, 2차조사는 연구자들이 담당교사에게 기입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후, 교사가 학생들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각 영역별 생활실태를 분석하여 시, 읍, 면의 지

역별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포, 백분률,  $\chi^2$ 검증, 일원분산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시지역이 48.8%, 읍지역이 16.1%, 면지역이 35.1%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변인별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성별 구조를 보면, 응답자의 49.9%가 남자이고, 50.1%가 여자이다. 연령은 40세이하가 전체의 56.6%를 차지하였고, 50대이상도 11.3%였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졸업은 6.7%에 불과하였다. 지역에 따른 교육정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비교적 다양한 집단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그러나 소득규모가 거주지역과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읍이나 면지역에 비하여 시지역의 소득이 낮게 나타났다. 시지역의 월평균 총가계소득은 약 200만원, 읍지역은 230만원, 그리고 면지역은 285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항 목	전 체	빈도(%)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성 별	남 자	335 (49.9)	170 (52.5)	55 (50.9)	110 (46.0)
	여 자	336 (50.1)	154 (47.5)	53 (49.1)	129 (54.0)
연 령	35세 이하	198 (29.8)	69 (21.6)	32 (29.9)	97 (40.9)
	36 - 40세	178 (26.8)	113 (35.3)	20 (18.7)	45 (19.0)
	41 - 45세	119 (17.9)	77 (24.1)	12 (11.2)	30 (12.7)
	46 - 50세	94 (14.2)	46 (14.3)	19 (17.8)	29 (12.2)
	51세 이상	75 (11.3)	15 ( 4.7)	24 (22.4)	36 (15.2)
교 육	초등졸 이하	42 ( 6.7)	18 ( 6.2)	8 ( 7.8)	6 ( 6.9)
	중 졸	119 (19.0)	59 (20.2)	15 (14.6)	45 (19.5)
	고 졸	275 (43.9)	124 (42.4)	45 (43.6)	106 (45.9)
	대졸 이상	190 (30.4)	91 (31.2)	35 (34.0)	64 (27.7)
가계소득	100만 이하	71 (13.0)	28 (11.9)	15 (16.0)	28 (13.0)
	101 - 150만	119 (21.8)	48 (20.3)	14 (14.9)	57 (26.5)
	151 - 200만	144 (26.5)	84 (35.7)	23 (24.5)	37 (17.2)
	201 - 250만	67 (12.3)	26 (11.0)	10 (10.6)	31 (14.4)
	251 - 300만	62 (11.4)	27 (11.4)	14 (14.9)	21 ( 9.8)
	301만 이상	82 (15.0)	23 ( 9.7)	18 (19.1)	41 (19.1)
직 업	전문·관리직	81 (12.1)	46 (14.2)	14 (13.0)	21 ( 8.9)
	사 무 직	106 (15.8)	47 (14.5)	20 (18.5)	39 (16.5)
	판매·서비스직	34 ( 5.1)	15 ( 4.6)	9 ( 8.3)	10 ( 4.2)
	자 영 업	95 (14.2)	38 (11.7)	22 (20.4)	35 (14.9)
	생산기능직	88 (13.2)	56 (17.1)	10 ( 9.3)	22 ( 9.3)
	농·축산직	51 ( 7.6)	12 ( 3.7)	8 ( 7.4)	31 (13.1)
	무직/전업주부	214 (32.0)	111 (34.2)	25 (23.1)	78 (33.1)

\* 무응답의 처리로 각 변수별 빈도의 합계에 차이가 있음.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응답자는 시지역보다 읍이나 면지역이 많다. 이와 동시에, 300만원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시지역은 불과 9.7%인데 반하여 읍이나 면지역은 약19%를 차지하고 있어 시지역보다 소득의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의 분포는 통합경산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수 및 상업농 중심인 부유한 농가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최근 지역개발로 인한 토지임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소득의 효과로 인하여 읍이나 면지역의 응답자들이 시지역 근로자들보다 높은 소득을 보인 것으로 간주된다.

직업은 사무직이 15.8%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직은 7.6%로 낮게 나타났다. 시지역 응답자들은 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읍지역은 자영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 2. 각 영역별 생활실태

### 1) 지역환경

통합경산시의 지역환경 실태를 지역의 자연·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염도와 동네근처의 하수처리 상태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가 3점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좋게 인식하고 있으나, 식수에 대한 신뢰도와 지역의 도로상태, 교통편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편에 대해서는 가장 불만족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도로상태와 하수처리 상태, 식수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읍, 면지역이 시지역보다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기 오염도에 대해서는 읍지역이 시지역과 면지역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통편에 대해서는 시지역이 오히려 읍지역보다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지역의 경우 생활권이 인접한 대구시와 연결되어 있어 교통거리상의 불편과 시가지 진입에의 교통장애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3>, 전체적으로 화재나 물난리, 가스유출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도둑, 강도, 성폭행 등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시장여건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시장여건에 대해서는 면지역이 시나 읍지역보다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범

<표 2> 자연·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

구 분	도 로 상 태			교 통 편			하수처리상태			식수 신뢰도			공기 오염도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전 체	682	2.56		679	2.34		684	3.03		686	2.71		686	3.26	
시지역	331	2.80	a	331	2.25	b	331	3.27	a	333	2.89	a	333	3.26	a
읍지역	110	2.38	b	108	2.56	a	110	2.89	b	110	2.46	b	110	3.01	b
면지역	241	2.30	b	240	2.36	ab	243	2.78	b	243	2.58	b	243	3.37	a
	F=19.12***			F=3.15*			F=24.45***			F=10.81***			F=5.10**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먼저 자연·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표 2>, 전체적으로 지역의 공기 오

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시와 읍지역이 면지역보다 더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에

〈표 3〉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구 분	시장여건에 대한 만족		범죄로부터의 안전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전 체	680	2.57	686	2.77	685	3.05
시지역	330	2.75 a	333	2.68 b	332	2.97 b
읍지역	109	2.91 a	110	2.51 b	110	2.98 ab
면지역	241	2.16 b	243	3.02 a	243	3.19 a
	F=29.02***		F=12.24***		F=3.63*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05 \*\*\* p < 0.001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시지역이 면지역보다 더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면 지역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안심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농촌지역의 생활만족수준을 측정한 김인숙(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대체로 면지역이 지역환경면에서 뒤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공기 오염도와 범죄로부터의 안전,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면에 있어서는 타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서비스

경산시 주민의 지역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4〉, 금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3.18), 나머지 의료서비스와 행정서비스, 복지시설, 문화·오락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에 못미치고 있어 주민들이 지역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 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화·오락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복지시설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인접한 대구시 지역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불만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지역이 시나 읍지역보다 더 불만족하고, 문화·오락시설에 대해서는 읍, 면지역이 모두 시지역보다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집단간에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DMR 검증결과 면지역이 읍지역보다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면지역이나 읍지역이 시지역보다 지역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덜 받고 있음을 시사해 주며 전반적으로 면지역이 지역서비스면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음을 반영해 준다.

3) 주거

경산시 주민의 주택 소유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가의 비율이 73.4%로 높은 편이며 전세가 21.1%, 사글세가 2.8%, 월세가 0.9%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주택의 편의시설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엌시설은 입식이 89.6%, 목욕시설은 온·냉수겸용 시설이 89.0%, 화장실은 수세식이 69.3%로 나타났으며, 난방방식은 기름보일러가 62.6%, 가스보일러가 22.7%로 대다수를 이루고 연탄보일러는 불과 3.8%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90년 통계자료<sup>1)</sup>와 비교해 볼 때, 전국 평균과 지역성과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동안 보다 편리한 시설로의 발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에 있어서는(1994년 자료) 경산시 지역(68.7%)이 대구시(98.7%)보다는 많이 뒤떨어지지만 경북전체(59.0%)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전반적인 주택 편의시설은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적으로 보다 낙후된 읍, 면지역의 주택 편의시설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경산시 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보면 〈표 5〉, 주거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나(3.18)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에 조금

1) 1990년 당시에는 전국의 경우 입식부엌이 52.8%, 온수가 나오는 목욕시설이 34.2%, 수세식 화장실은 51.6%였고, 주된 난방방식은 연탄보일러(48.6%)였으며, 기름보일러는 20.0%에 불과하였다.(통계청, 1995)

〈표 4〉 지역서비스 만족도

구 분	의료 서비스			행정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복지 시설			문화·오락시설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전 체	681	2.43		681	2.88		677	3.18		665	2.41		672	1.78	
시지역	328	2.54	a	328	2.89		326	3.19	ab	318	2.35		322	1.97	a
읍지역	110	2.53	a	110	2.87		110	3.35	a	110	2.48		110	1.64	b
면지역	243	2.23	b	243	2.87		241	3.10	b	237	2.45		240	1.60	b
	F=8.95***			F=0.03			F=2.65			F=1.25			F=13.55***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lt; 0.001

못 미치는 점수분포(2.90)를 보이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주거공간 만족도에 있어서는 읍지역이 시지역보다 낮고, 주거환경 만족도에 있어서는 면지역이 시지역보다 낮게 나타나 읍, 면지역의 주거공간이나 주거환경이 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시지역보다는 읍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이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주거 만족도

구 분	주 거 공 간			주 거 환 경		
	N	평균	D	N	평균	D
전 체	683	3.18		680	2.90	
시지역	330	3.27	a	328	2.99	a
읍지역	110	2.99	b	110	2.81	ab
면지역	243	3.16	ab	242	2.81	b
	F=3.28*			F=3.25*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lt; 0.05

## 4) 가족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는 대부분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갈등이 있다”는 응답자들 중에 60.4%가 배우자와의 가치관이나 성격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문제가 21.0%, 그밖에 시댁(처가)문제, 배우자의 도박이나 폭음을 들었다. 갈등을 갖고 상담소를 이용한 응답자는 전체

의 0.5%에 불과한 극히 일부였다. 그러나 상담소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응답자는 전체의 65.9%로 높은 요구를 보였다.

평균자녀수는 2.1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시지역이 2.23명, 읍지역이 1.98명, 그리고 면지역이 1.96명으로 나타나 면이나 읍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녀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는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직업의 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관리직일수록 자녀의 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자녀수는 2.7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일일 평균대화시간은 2시간 12분이고 지역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와 의견이 충돌되는 정도를 보면, 읍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표 6〉 자녀의 수, 대화시간 및 갈등정도

구 분	자녀수(명)			자녀와의 대화 시간(시간)			자녀와의 갈등정도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전 체	621	2.10		621	2.23		648	2.83	
시지역	311	2.23	a	311	2.10		328	3.26	a
읍지역	101	1.98	b	101	2.13		104	2.76	b
면지역	209	1.96	b	209	2.46		216	3.11	a
	F=3.43*			F=2.29			F=3.84*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lt; 0.05



들보다 시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충돌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의견충돌 이유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4.1%가 성적때문이라고 하였고, 25.2%가 자녀의 성격, 19.5%가 생활습관이라고 답하여 자녀와의 갈등은 주로 일상생활속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5) 사회망: 친구 및 이웃관계

응답자의 대부분은 가까운 친구가 있었으나, 지역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접촉빈도는 시지역보다는 읍이나 면지역에서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관계도 시지역보다는 읍이나 면지역에서 친밀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각종 친목단체에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87%에 이르러 높은 참여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단체참여활동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7〉 지역에 따른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도

구 분	친구와의 접촉도			이웃과의 접촉도		
	N	평균	D	N	평균	D
전 체	677	2.46		679	2.67	
시지역	329	3.44	a	330	2.54	a
읍지역	108	3.69	b	109	2.77	b
면지역	240	3.63	b	240	2.80	b
	F=3.65 *			F=7.06***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01

6) 교육

학교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학교교육의 질적인 면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교육시설을 비롯한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체평균이 2.91로 나타나 보통수준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읍지역이나 면지역 주민들이 시지역 주민들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전체평균은 3.5 정도로 나타나 학교교육이 사회에서 약간 활용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시지역과 면지역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시지역 주민들이 면지역 주민들보다 교육이 사회에서 더 유용하게 이용된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교육실태

지 역	교육의 질		교육환경		교육의 유용성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전 체	617	2.96	612	2.91	671	3.47
시지역	328	3.12	a	328	3.11	a
읍지역	99	2.83	b	99	2.74	b
면지역	190	2.76	b	185	2.66	b
	F=11.08**		F=16.48**		F=3.34*	

D: Duncan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7) 건강

건강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변수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응답자를 포함한 가족원들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문가와의 상담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 25.5%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57.0%는 한두번 정도라고 응답하였으며, 17.4%는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1년 동안 병이나 사고로 병석에 누웠던 총날수에 대해 29.3%는 하루도 없었다고 응답한 반면 약 60%는 1주일 혹은 2주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한달 이상이라고 응답한 분포도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중에 만성환자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15.4%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만성환자 중에 당뇨병(13.1%)과 간염(11.1%)을 앓고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았고, 그 다음이 고혈압, 갑상선, 위장병, 척추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건강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44.9%로 가장 많았고, 36.5%는 불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18.6%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건강에 대해 만족하는 주민보다 불만족하는 주민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

〈표 9〉 건강

구 분		%
5년동안 건강진단 및 전문가와의 상담 경험	N	682
	전혀 없음	25.5
	한두번	57.0
	매년 정기적	17.4
1년동안 병이나 사고로 병석에 누웠던 날 수	N	679
	하루도 없음	29.3
	1 주일 정도	53.2
	2 주일 이상	7.4
	1 달 이상	10.2
가족내 만성환자 유무	N	676
	유	15.4
	무	84.6
건강만족도	N	682
	불만족	36.5
	보통	44.9
	만족	18.6

다. 이상의 관련변수들 모두가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관련 경험 정도와 만족도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고용 및 가사노동

경산시 주민의 고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이 수입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8.9%였다. 수입을 벌기 위한 노동시간 중에서 근무시간을 보면 출퇴근이 자유로운 자유업 종사자들은 1일 10.1시간, 출퇴근이 정해진 정시근로자의 경우는 1일 9.2시간을 노동하고 있어서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시근로자 보다 1일 1시간 정도 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노동시간의 차이는 없었다. 〈표 10〉에서 보면, 통근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51분이나, 1일 4시간을 출퇴근

에 소비하는 경우도 있어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지역의 출퇴근시간이 가장 길고 읍지역이 가장 짧았다. 그런데 주민들의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읍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표 10〉 고용 및 가사노동실태

구 분	통근시간(분)			일의지속년수 (년.월)			가사용품 보유도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전 체	283	51		453	10.1		621	3.6	
시지역	145	58	a	208	9.2	a	287	3.7	
읍지역	54	38	b	81	9.7	ab	104	3.5	
면지역	83	46	ab	164	11.6	b	230	3.4	
	F=4.79**			F=3.12*			F=3.76*		

D: Duncan Multiple Range test

\*  $p < .05$  \*\*  $p < .01$

응답자들이 현재하고 있는 일의 지속년수는 평균 10년 1개월이며,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면지역의 경우가 가장 지속년수가 길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근속연수 4.8년에 비해서는(노동부, 1995) 전반적으로 긴 편이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지속여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는 87.2%가 계속하겠다고 응답한(통계청, 1995) 것에 비해 훨씬 낮은 54.2%만이 현재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가사노동에 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주부의 취업률을 보면, 여성응답자 336명 가운데 취업주부는 37.8%인 121명으로 1994년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46.4%에 비해 낮은 편이다. 취업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면지역에 거주하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주부가 자신의 경제활동을 취업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sup>2)</sup> 또, 평일, 토

2) 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응답자가 자신의 직업을 농축산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5%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125명 취업주부의 직업분포는 전문관리직 21.6%, 사무직 12.8%, 판매서비스직 11.2%, 자영업 28%, 생산기능직 16%, 농축산직 10.4%로 나타났다.

요일, 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하여 산출한 주부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44시간 31분이었다. 가사노동시간은 취업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비취업주부는 주당 평균 49시간 11분, 취업주부는 36시간 53분으로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주당 평균 12시간 32분 더 길었다. 남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14시간 24분으로 여자에 비해 30시간정도가 적었다. 가사노동을 보조하는 가사용 전기기구의 보유는 전자동세탁기 93.1%, 전자레인지 70.3%, 전기청소기 72.9%, 식기세척기 12.9%, 전기보온밥솥 96.1%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기구의 이용정도는 보유비율과 같은 순으로 나타나서 전기보온밥솥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식기세척기의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가사용기구 보유수준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시지역이 평균 3.7점의 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면지역은 평균 3.4점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시지역이 면지역에 비해 더 여러가지의 기구를 가지고 있었다(〈표 10〉 참조).

9) 여가생활

경산시 주민의 여가실태는 〈표 11〉에 나타나 있다. 주당 평균 여가시간은 26시간이고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나, 시지역 주민이 면지역 주민에 비해 다소 긴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소득에서 차지하는 여가비용의 비율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시,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의 여가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화오락 시설의 지역적인 차이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활동이나 여행, 강습, 독서나 음악감상 등의 여가활동 참여빈도는 평균 6개월에서 1년에 한 두번 참여하는 정도로 낮았다. 이는 지역의 문화오락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과 연결시켜 볼 때, 지역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 지는 것이 여가활동 참여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각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여가용 문화오락시설은 자동차 72.2%, 비디오 카메라 12.3%, 비디오 85.5%, 사진기 86%, 전축 76.3%, 피아노 35.1%, 컴퓨터 40.1% 이었으며, 이상의 7가지 용품 가운데 시지역 주민은 평균 4.4가지, 읍과 면지역에서는 평균 3.8가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경산시 주민의 전반적인 여가실태는 시,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주민의 여가생활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10) 경제생활

경산시 주민들이 경제생활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상대적 소비생활수준에 대해

〈표 11〉 여가 실태

구 분	주당여가시간(시간)			월여가비용(천원)			여가비비율(%)			여가용품보유도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N	평균	D
전 체	592	26.0		635	105.2		512	5.5		666	4.1	
시지역	271	27.8	a	295	116.3	a	211	6.4	a	319	4.4	a
읍지역	102	25.1	ab	108	117.4	a	92	6.4	a	108	3.8	b
면지역	219	24.3	b	232	85.4	b	209	4.3	b	239	3.8	b
	F= 2.75			F= 5.07**			F= 5.41**			F= 12.62**		

D: Duncan Multiple Range test

\* p < .05 \*\* p < .01

나 월 여가비용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시나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의 여가비용 지출이 적었다. 월

서는 전체 응답자의 55.7%는 이웃과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27.5%는 낮다고 그리고 16.8%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대적 소비생활수준은 지역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주관적 계층귀속의식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들의 65.1%가 중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반면 32.3%는 상위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7%만이 하위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응답자들 중 사회적으로 하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분포는 면지역이 4.6%, 시지역이 1.8% 그리고 읍지역이 0.9%로 나타난 반면 상위층이라고 응답한 분포는 읍지역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지역이나 면지역에 비해 읍지역 주민들의 계층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적정도에 대해 54.4%가 현재의 소득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 부족하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가계수요가 충족되지 않음을 보였고, 39.3%는 생활에 필요한 것 외에도 원하는 것의 일부 혹은 대부분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6.3%는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도 저축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안정도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39.3%로 분포가 가장 높았고 불안정하다고 응답한 주민은 2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소득적정도와 안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만족하는 주민들의 비율보다 불만족한 주민들의 비율이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지역과 읍지역은 불만이라고 응답한 분포가 가장 높는데 비해 면지역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시간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5년전과 현재의 경제상태를 비교한 과거준거시점에 대해서는 전체 주민들의 절반정도(47.8%)가 더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후의 경제상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미래준거시점에 대해 전체 주민들의 68.3%가 호전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으며, 24.9%는 비슷할 것으로, 6.8%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미래준거시점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세 지역 모두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복지대책 방안 및 제언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산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환경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경산시 전역에 걸쳐 교통정체 구간을 알아내어 도로확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인접한 지역간의 교통원활을 위하여 버스배차의 증차 및 시간간격의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경산시 지역의 경우 재래시장의 낙후화와 도소매상의 영세성 및 근대화된 유통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지역시장의 여건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으므로 지역내 대규모 쇼핑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인접지역인 대구시 시지동 일대의 대단위 신혼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역으로 유입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쓰레기봉투의 질적 개선과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면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가 보다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또 경산시의 낮은 하수도 보급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특히 읍, 면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구의 위생상태 점검 및 하수도 설비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시와 읍지역이 면지역보다 더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행정당국에서는 이들지역에 대해서 치안상태의 유지와 화재나 가스유출 등 각종 재해의 취약지구에 대해서 안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서비스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문화·오락시설의 확충과 공원단지 및 위락단지의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오락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 면지역 주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질

〈표 12〉 경제생활

(단위: %)

구 분		전 체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상대적 소비생활수준	N	680	332	108	240
	낮다	27.5	28.3	27.8	26.3
	비슷하다	55.7	56.0	52.8	56.7
	높다	16.8	15.7	19.4	17.1
$\chi^2 = 1.15$					
주관적 계층귀속의식	N	679	331	108	240
	하위층	2.7	1.8	0.9	4.6
	중위층	65.1	68.3	59.3	63.3
	상위층	32.3	29.9	39.8	32.1
$\chi^2 = 9.15^*$					
가계소득 적정도	N	680	332	108	240
	생활필수품정도만 구입	54.4	56.6	55.6	50.8
	원하는 것 일부 구입	39.3	37.0	37.0	43.3
	원하는 것 구입/저축가능	6.3	6.3	7.4	5.8
$\chi^2 = 2.75$					
가계소득 안정도	N	680	332	108	240
	불안정하다	29.1	28.3	28.7	30.4
	보통이다	31.6	32.2	25.0	33.8
	안정적이다	39.3	39.5	46.3	35.8
$\chi^2 = 4.18$					
경제적 만족도	N	679	332	107	240
	불만이다	44.3	47.3	43.0	40.8
	보통이다	41.2	40.4	34.6	45.4
	만족이다	14.4	12.3	22.4	13.8
$\chi^2 = 9.41^*$					
과거준거시점: 5년전과 비교한 경제상태	N	678	331	108	239
	나빠졌다	27.3	32.0	26.9	20.9
	비슷하다	24.9	19.9	26.9	31.0
	좋아졌다	47.8	48.0	46.3	48.1
$\chi^2 = 13.30^{**}$					
미래준거시점: 5년후의 경제상태 에 대한전망	N	676	328	108	240
	나빠질 것이다	6.8	7.6	9.3	4.6
	비슷할 것이다	24.9	26.5	24.1	22.9
	좋아질 것이다	68.3	65.9	66.7	72.5
$\chi^2 = 4.72$					

\*  $p < 0.05$  \*\*  $p < 0.01$

과 시설면에서의 개선이 요망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의료서비스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 면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체계의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거환경면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개선이 되어 왔으나 주거생활의 질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읍, 면지역과 시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택보급의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교육의 질적인 면을 보완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투자는 시지역 뿐 아니라 특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읍지역과 면지역에 더 치중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지역주민의 큰 관심사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므로 청소년의 미래와 인력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더 많은 관심속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가계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내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직업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적극적 노력과 대처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악한 경제상태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나 기술, 그리고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고 가계의 경제문제 및 재정문제 해결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경산시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경산시 전체의 발전 뿐 아니라 지역별로 분배의 형평화를 통해 지역차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하여 지역간 위화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며 그들의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충분히 반영하

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절실히 요망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학계가 서로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조하는 관학협동체제를 활성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삶의 질을 진단할 수 있는 영역별 생활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므로 지역이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그 변수들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밝혀냄으로써 연구의 심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영역별 삶의 질 수준의 향상이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의 향상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척도의 가중치 문제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며, 삶의 질 지표의 체계화와 정교화 문제에 대해서도 연차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하고 타당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고보선·임정빈, "가계경제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92, 191-208.
- 2) 경산시, 시정현황, 1995.
- 3) 김경자,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993, 107-118.
- 4) 김미숙·김명자,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990, 171-183.
- 5) 김인숙·최은숙, "농가의 생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2), 1993, 83-97.
- 6) 김정옥, "도시부부의 갈등해결 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2), 1985, 91-110.
- 7) 박충선,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

- 구,” 여성연구, 8(3), 1990, 115-153.
- 8) 이기영 · 김외숙 · 서창원 · 이승미, “도시근로자가 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1994, 31-46.
- 9) 정영숙, “도시지역 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생활의 질 만족도-한산도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5(1), 1994, 57-69.
- 10) 조희금, “농촌주부가 인정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구대가정생활연구, 제1집, 1986, 29-43.
- 11) 최은숙 · 노자경, “농가의 경제적 복지 측정 및 관련변수 연구 - 경기도, 용인,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1), 1993, 13-35.
- 12)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I ), ( II ), 1995.
- 14) Andrews, F.M., & Withey, S.B.,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1976.
- 15) Bubolz, M.M., Eigher, J., Evers, S., & Sontag, M.,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 1980, 103-136.
- 16) Campbell, A.,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81.
- 17) Dunsing, M.M.,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1983.
- 18) Hafstrom, J.L., “Consumption Level as It Related to Quality of Life,” *Compendium of Quality of Life Research*,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School of Human Resource and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Illinois, 1986.
- 19) Hill, M.S., “Patterns of Time Use,” Juster, F.T., & Stafford, F.P., (ed), *Time, Goods, and Well-Being*, ISR, 1985, 133-166.
- 20) ILO, *Year Book of Statistics*, 1993.
- 21) Metzen, E.J., *Quality of Life as Affected by Area of Residence*, North Central Regional Research Publication No. 270., Ames: Agriculture and Home Economics Experiment Station, Iowa State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80.
- 22) Walker, F.S., “Home Management and Quality of Life,” Haftstrom, J.L. (ed), *Compendium of Quality of Life Research*, University of Illinois, 1986, 136-183.